

# 韓中日 三國의 『東醫寶鑑』 관련 序文, 集例, 跋文에 대한 연구

<sup>1</sup>김남일, <sup>2</sup>국수호

<sup>1</sup>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sup>2</sup>세명대학교 한의과대학

## A Comparative Study of various introductory remarks about Donguibogam Written by Koreans, the Chinese, and the Japanese

<sup>1</sup>Kim Namil, <sup>2</sup>KUG Soo-ho

<sup>1</sup>College of Korean Medicine, Kyung Hee University, <sup>2</sup>College of Korean Medicine, Se-Myung University

Yi Junggoo's introductory remarks are the first preface to be written since the book was completed, and boast outstanding sentences as they describe the process of publishing, the people involved, and the significance of the book. Hur Jun's Chiprae deals with the composition, capacity, and historical significance of the text. Chinese scholars' introductory remarks deal with the significance of the book's world history and its wide utiliz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Chinese people. Japanese scholars describe the book's excellence and the significance of suggesting standardization of treatment.

Key words : Donguibogam, Hur Jun, Korean Medical History, Comparison of traditional medicine

### I. 서론

『東醫寶鑑』은 許浚(1539~1615)에 의해 저술된 한국을 대표하는 의학서적이다. 이 책이 나오으로써 한의학은 중국과 구별되는 독자적 의학체계를 갖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게 되었다.<sup>1)</sup> 이 책이 간행된 이후 중국, 일본에서는 이 책의 우수성을 인식하고 앞다투어 간행하게 되었고, 조선에서도 의학적 수요에 발맞추어 수차례 간행하였다. 1613년 이래로 조선, 중국, 일본 등지에서 30여 종의 판본이 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한중일 삼국의 『東醫寶鑑』 관련 序文, 集例, 跋文을 번역하고 이에 대한 고찰을 통해 한중일 삼국의 『東醫寶鑑』을 바라보는 시각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1611년 李廷龜가 지은 東醫寶鑑序, 『東醫寶鑑』이 간

행될 때 許浚이 적어 넣은 集例, 1766년 중국인 凌魚가 지은 東醫寶鑑序, 1723년 日本醫官 源元通의 訂正東醫寶鑑跋, 1723년 日本人 藤原朝臣의 訂正東醫寶鑑序, 1890년 중국인 閔萃祥의 東醫寶鑑序의 서문을 번역하고 이에 대한 해설을 첨부하였다.

### II. 본론

#### 1. 『東醫寶鑑』 관련 서문, 집례, 발문 개괄

본 연구에서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는 서문, 집례, 발문 등은 다음과 같다.

① 1611년 李廷龜가 지은 東醫寶鑑序 : 光海君 3年(1611)

접수 ▶ 2023년 11월 20일 수정 ▶ 2023년 11월 30일 채택 ▶ 2023년 11월 28일  
교신저자 ▶ 국수호,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경희대로 26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551호  
Tel : 02-961-2274 E-mail : koogsoho@khu.ac.kr

1) 강연석, 김훈, 김남일, 김용진, 김종현, 김태우 외. 『의사학』. 고양:대성의학사. 2023:151.

여름 李廷龜가 序文을 짓고, 內醫院 안에 局을 설치하여 直長 李希憲과 副奉事 尹知微가 監校官이 되어 책임을 맡았다. 마침내 光海君 5年(1613) 11月 訓練都監活字로 初刊活字本이 세상에 나오게 되었다. 이 版本은 바로 萬曆 41年(1613) 成立된 初刊活字本이다. 이것은 초간본 서문 다음에 수록된 간행 기록에 근거한 것이다.<sup>2)</sup> 그리고 李廷龜의 서문에 “萬曆三十九年 辛亥 … 李廷龜”이라는 기록을 통해서 서문이 1611년 저술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② 『東醫寶鑑』이 간행될 때 許浚이 적어 넣은 集例 : 集例는 內景篇의 첫 부분에 붙어 있는 凡例形式의 글로서 이 책의 체계와 목표에 대한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다.

③ 1766년 중국인 凌魚가 지은 東醫寶鑑序 : 『東醫寶鑑』이 언제 中國에 傳來되었는지는 確實하지 않다. 다만 中國과 朝鮮間에 頻繁한 交流가 있었던 時期일 것으로 推測할 따름이다. 英祖14年(1738) 2月 朝鮮王朝實錄에는 “敕使求 東醫寶鑑及清心丸五十九 鬆發二束以去”라는 기사가 보인다. 그런데 清 乾隆 癸未(1763)年 刊行된 乾隆壁魚堂刊本을 1766년 再版한 版本으로 凌魚의 序文이 실려 있다

④ 1723년 日本醫官 源元通의 訂正東醫寶鑑跋 : 『東醫寶鑑』初刊活字本이 刊行된 以後로 壬辰倭亂과 丁酉再亂을 거치면서 朝鮮과 日本間의 外交的 斷絶이 있었다. 『接待事目錄抄』에 顯宗 3年(1662)3月 日本이 朝鮮에서 『東醫寶鑑』과 『醫林撮要』를 가지고 왔다는 記錄이 보인다. 그러므로 『東醫寶鑑』初刊活字本이 刊行되고 59年 以後에 日本에 傳來된 것이다. 日本 享保9年(1724·甲辰) 初刊本으로 日本京都書林에서 처음 刊行되었다. 刊記에 “享保九年甲辰仲夏刻成”이라고 되어있다.

⑤ 1723년 日本人 藤原朝臣의 訂正東醫寶鑑 : 위에서 언급한 源元通의 訂正東醫寶鑑跋과 같은 책에 등장한다.

⑥ 1890년 중국인 閔萃祥의 東醫寶鑑序 : 日本 京都書林의 판본을 번각하면서 閔萃祥의 서문이 첨가된 판본으로서 이를 ‘光緒閔萃祥序刊本’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 2. 李廷龜의 東醫寶鑑序

李廷龜(1564-1635)는 본관이 연안이며, 자는 聖微, 호는 月沙이다. 조선중기 문장을 대표하는 漢文四大家는 이정귀, 신희(申欽, 1566-1628), 이식(李植, 1584-1647), 장유(張維, 1587-1638)를 가리키는데 이정귀는 그 중 한 사람으로 꼽히는 인물이다.<sup>3)</sup> 문장으로 유명한 가문에서 성장하여 여러 가지 명문을 썼으며 특히 외교문서와 비문은 그가 도맡아서 작성하였다고 한다. 또한, 중국어에도 능하여 사신과 지원군의 접대도 도맡아서 하였다. 이와 같은 능력과 임진왜란 때 선조를 호송한 공로 등으로 그는 병조판서, 예조판서, 우의정, 좌의정 등 정부요직을 두루 섭렵하게 되었다.

그는 의약에 밝은 인물로 정평이 나 있어서 光海君이 등극한 이후로 간행된 『東醫寶鑑』, 『黃帝內經』의 서문을 쓰게 되었다. 『東醫寶鑑』 서문은 손꼽히는 명문장으로서 의약에 대한 李廷龜의 해박한 지식이 배여 있다. 『東醫寶鑑』은 그 뛰어난 내용뿐 아니라 序文의 名文으로도 유명한 것은 당시 최고의 문장가인 李廷龜가 작성하였기 때문이다.

이정구의 序文은 다음과 같다.

“의학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황제와 기백을 언급한다. 이 황제와 기백은 위로 하늘의 기틀을 다 연구하였고 아래로 사람의 이치를 다 궁구하여, 의학에 대해 기록하고 서술하는 작업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을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도 질문을 베풀어 난해한 내용들을 저술로 남겨서 후세에 의학의 방법을 제시해주었으니 이 때문에 오래전부터 의학 서적이 있게 되었다. 위로 창공, 진월인으로부터 아래로 유완소, 장종정, 주진형, 이고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학파가 이어서 일어나 학설들이 어지러이 생겨나 그 실마리가 되는 것들만을 표절하여 학파를 다투어 세우니 책은 더욱 많아졌지만 의학은 더욱 혼미해져서 『영추』 본래의 뜻과 동떨어진 경우가 많았다. 세상의 용렬한 의사들이 근본 이치를 연구하지 않고 혹 경전의 가르침을 위배하고서 제멋대로 하거나 혹 옛것에 융통성 없이 얽매어 변통을 하지 못하여 선택의 기준이 없이 해매어 그 요체가 되는 것을 놓치고 만다. 이러하기에 사람을 살리려고 하지만 오히려 죽이고 마는 경우가 많다.

우리 선조대왕께서 몸을 다스리는 방법을 가지고 백성을

2) 옥영정. 「『東醫寶鑑』 初刊本과 한글본 『동의보감』의 서지적 연구」. 장서각. 2010;24:14.

3) 권진욱. 「조선 중기 한문 사대가의 비평사적 존재 양상과 위상 재고」. 한국어문학회학술포럼. 2022;58:274-275.

구제하는 어진 마음을 연장시키셔서 의학에 뜻을 두시어 백성의 고통을 애통하게 생각하셨다. 이에 일찍이 병신년(1596년)에 태의인 허준을 불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요즘에 보건대 중국의 의학 서적들이 모두 베껴 모은 자질 구레한 것들이기에 볼만한 것이 없다. 모든 의서들을 모아서 한권의 책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사람의 질병은 모두 조섭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니 수양에 관한 내용들을 앞에 놓고 약물이나 침구에 대한 내용들을 그 다음으로 놓아야 할 것이다. 모든 의서들이 호변하니 그 요체를 가리기에 힘쓰라. 궁벽한 시골과 후미진 거리에 의원과 약재가 없어서 요절하는 자들이 많은 것은 우리나라에 鄉藥은 많이 생산되지만 사람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이니, 분류하고 향약명을 기록하여 백성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허준이 이 말씀을 듣고 물러나 儒醫 정작, 태의 양예수, 김응탁, 이명원, 정예남 등과 함께 기구를 설치하여 편찬을 시작하여 뼈대를 만들 즈음에 정유재란(1597년에 발발)이 일어나 모든 의사들이 뿔뿔이 흩어져 일이 중단되고 말았다. 그 이후에 선왕께서 다시 허준에게 홀로 작업할 것을 명령하시고 조정에서 보관하고 있는 의서 500여 권을 제공하여 의서 고증에 도움이 되도록 하셨다. 그러나 작업이 반도 채 되지 않아 임금님께서 승하하시고 말았다. 성상(광해군을 말함)께서 즉위하신 지 3년이 지난 해인 경술년(1610년)에 허준이 비로소 일을 마치고 임금께 나아가 바치니, 제목이 『동의보감』으로 책이 모두 25권이였다.

성상(광해군)께서 보시고 기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양평군 허준이 일찍이 선왕(선조대왕) 때에 특별히 의서를 편찬할 명령을 받들어 수년간 깊이 연구하여 피난, 귀양 등으로 이리저리 흘러 다니면서 떨어져 있었던 상황임에도 그 일을 중단하지 않고 지금 책을 엮어 가지고 왔다. 이에 생각하건대 선왕께서 명하신 책이 과인이 참람스럽게도 왕위를 계승한 이후에 다 이루어진 것을 보니 비통한 감정을 다 억누를 수 없도다.” 그리고 나서 허준에게 태복마 1필을 하사하셔서 그 수고를 위로하시고, 속히 내의원에 명령해서 간행청을 구성하여 인쇄하여 널리 배포하도록 하셨다. 또한 제조인 본인 이정구에게 서문을 지어 책의 앞에 붙이도록 명령하셨다. 신이 가만히 생각해보건대 크게 조화로운 기운이 한번 흩어지면 六氣가 조화를 잃어 온갖 질병이 번갈아 백성의 재앙이 되니, 의학을 만들어 그 요절하는 백성

들을 구제하는 것은 진실로 제왕된 이의 어진 정치의 제일 먼저 힘 쓸 바이다. 그러나 의술은 책이 아니면 실을 수 없고, 책은 가리지 않는다면 정미롭지 못하고, 수집하는 것은 널리하지 않으면 이치가 분명하지 않고, 전하는 것이 넓지 않으면 혜택이 퍼지지 못하는 것이다.

이 책은 옛것과 지금의 것을 두루 포괄하고 수많은 말들을 절충하여 근본을 찾아 근원에 깊이 들어갔고 강령과 요점을 잘 제시하고 있다. 상세하지만 산만하지 않고, 요약되어 있으나 포괄하지 않는 것이 없다. 內景篇, 外形篇으로부터 시작하여 雜病, 諸方으로 나누어 脈訣, 症論, 藥性, 治法, 攝養要義, 鍼石에 이르기까지 다 갖추어져 있으면서 정연하게 되어있어 어지럽지 않다. 병이 걸린 사람은 비록 그 증후가 천 가지, 백 가지로 차이가 나지만 補瀉하거나 천천히 치료하거나 급하게 치료하는 데에 있어 두루두루 합당할 것이다. 무릇 멀리 옛날 의서를 참고할 필요도 없고 가까이 옆집에 가서 처방을 찾을 필요도 없으니, 오직 분류된 병증의 목록을 살펴서 처방을 찾으면 여러 차례 맞는 처방이 나올 것이다. 이에 따라 증상에 맞추어 약물을 투여하면 부절이 맞아 떨어지는 것 같을 것이니, 진실로 의가의 보배로운 거울이요, 세상을 구제하는 훌륭한 방법이라. 이것은 모두 선왕(선조대왕)께서 지적하여 주신 현묘한 지혜이며 우리 성상(광해군)의 선왕의 뜻을 계속하여 이으신 깊은 뜻이니, 그 백성을 사랑하고 만물을 아끼는 덕과 쓰임을 이롭게 하고 생명을 두터이 하는 도를 선왕과 지금의 왕이 한가지로 헤아리셨으니 중용을 잃지 않도록 자리잡게 하고 만물이 자라도록 하는 다스림이 진실로 여기에 있다. “어진 사람이 마음 씀에 그 이로움이 드넓다”라고 하였으니, 어찌 그리함을 믿지 않을 것인가.”<sup>4)</sup>

### 3. 許浚의 集例

許浚의 集例에서는 『東醫寶鑑』의 구조에 대한 설명이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다. 해당 내용은 아래와 같다.

“신이 삼가 살펴보건대, 몸의 안에는 오장육부가 있고 밖에는 근골, 기육, 혈액, 피부가 있어서 그 형체를 이루는데, 정기신이 또한 장부와 온갖 부위의 주체가 된다. 그러므로 도가의 三要와 석가모니의 四大은 모두 이것을 말하는 것이다. 『황정경』에는 內景이라는 글이 있고, 의서에도 또한

4) 이상 許浚. 『原本 東醫寶鑑』. 서울:남산당. 1975:1-2의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필자가 번역함.

內外境界의 그림이 있다. 道家는 맑고 고요히 수양하는 것을 근본으로 하고, 의학에서는 藥餌와 鍼灸로 치료를 하니, 이에 도가는 그 정미로움을 얻었고 의학은 그 거친 것을 얻었다 할 것이다. 지금 이 책은 먼저 內景의 정, 기, 신, 장부로 內篇을 삼고, 外境의 頭, 面, 手, 足, 筋, 脈, 骨, 肉으로 外篇을 삼고, 또한 五運六氣, 四象, 三法, 內傷, 外感, 諸病의 증상을 나열하여 雜篇으로 삼고, ㄷ트머리에 湯液, 鍼灸를 덧붙여 그 변통의 이치를 다 밝혔다. 환자들이 책을 펴서 눈으로 보기만 한다면 허실, 경중, 길흉, 사생의 징조가 물거울처럼 확연히 드러나도록 하였으니, 거의 잘못 치료하여 요절하는 근심이 없을 것이다.(臣謹按人身內有五藏六府外有筋骨肌肉血脈皮膚以成其形而精氣神又爲藏府百體之主故道家之三要釋氏之四大皆謂此也黃庭經有內景之文醫書亦有內外境界之圖道家以清靜修養爲本醫門以藥餌鍼灸爲治是道得其精醫得其粗也今此書先以內景精氣神藏府爲內篇次取外境頭面手足筋脈骨肉爲外篇又採五運六氣四象三法內傷外感諸病之證列爲雜篇末著湯液鍼灸以盡其變使病人開卷目擊則虛實輕重吉凶死生之兆明若水鏡庶無妄治夭折之患矣)<sup>5)</sup>

위의 문장은 『東醫寶鑑』에서 허준 자신이 직접 적은 것으로 凡例의 성격을 띤 ‘集例’라는 제목의 글의 일부분이다. 이 글은 『東醫寶鑑』의 5편의 내용 구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아래에서 內景, 外形, 雜病, 湯液, 鍼灸의 『東醫寶鑑』 5개의 편에 대한 설명에 해당하는 문장들을 먼저 모아보고, 전체편의 구조와 그 구조화의 목표를 담고 있는 글들을 구분해서 살펴본다.

○ 內景 : “몸의 안에는 오장육부가 있고”, “정기신이 또한 장부와 온갖 부위의 주체가 된다. 그러므로 도가의 三要와 석가모니의 四大는 모두 이것을 말하는 것이다.”, “『황정경』에는 內景이라는 글이 있고, 의서에도 또한 內外境界의 그림이 있다.”, “內景의 정, 기, 신, 장부로 內篇을 삼고”.

○ 外形 : “밖에는 근골, 기육, 혈액, 피부가 있어서 그 형체를 이루는데”, “의서에도 또한 內外境界의 그림이 있다.”, “外境의 頭, 面, 手, 足, 筋, 脈, 骨, 肉으로 外篇을 삼고”.

○ 雜病 : “五運六氣, 四象, 三法, 內傷, 外感, 諸病의 증상을 나열하여 雜篇으로 삼고”.

○ 湯液 : “ㄷ트머리에 湯液, 鍼灸를 덧붙여 그 변통의 이치를 다 밝혔다.”

○ 鍼灸 : “ㄷ트머리에 湯液, 鍼灸를 덧붙여 그 변통의 이치를 다 밝혔다.”

위의 내용으로 전체 편 구조를 조망할 수 있다. 허준은 “『황정경』에는 內景이라는 글이 있고, 의서에도 또한 內外境界의 그림이 있다. 道家는 맑고 고요히 수양하는 것을 근본으로 하고, 의학에서는 藥餌와 鍼灸로 치료를 하니, 이에 도가는 그 정미로움을 얻었고 의학은 그 거친 것을 얻었다 할 것이다.”라고 말을 하며 질병 치료 위주의 의학의 내용을 완곡하게 비판하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서 도가의 수양법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도가의 수양법은 동의보감의 편찬과정에 참여한 조선 도교계의 인사 古玉 鄭礎(1533-1603)<sup>6)</sup>의 영향이 있었으리라 사료된다. 또한 내외경상이라는 개념을 목차의 구조로까지 확대하였다. 이것은 “지금 이 책은 먼저 內景의 정, 기, 신, 장부로 內篇을 삼고, 다음으로 外境의 頭, 面, 手, 足, 筋, 脈, 骨, 肉으로 外篇을 삼고, 또한 五運六氣, 四象, 三法, 內傷, 外感, 諸病의 증상을 나열하여 雜篇으로 삼고, ㄷ트머리에 湯液, 鍼灸를 덧붙여 그 변통의 이치를 다 밝혔다.”라고 언급한 대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전체 편 구조의 목표는 다음과 같이 제시되었다. “환자들이 책을 펴서 눈으로 보기만 한다면 허실, 경중, 길흉, 사생의 징조가 물거울처럼 확연히 드러나도록 하였으니, 거의 잘못 치료하여 요절하는 근심이 없을 것이다.”라는 언급에서 새로운 구조에 기반한 의학이 백성들의 보건의 증진이라는 공익에 이바지할 것임을 기대하게 한다.

#### 4. 중국인 凌魚의 동의보감서

淸나라 凌魚가 쓴 『東醫寶鑑』의 서문은 朴趾源(1737-1805)의 『燕巖集』가운데 들어 있는 『熱河日記』와 韓致彞(1765-1814)의 『海東繹史』에 나온다. 이 서문은 ‘乾隆 31년 丙戌(1766년) 7월 상순’에 쓰인 것으로 凌魚의 관직에 대해 “호남, 소양, 예릉, 흥녕, 계양의 현사를 역임하였고, 경오, 임신, 계유, 병자년 네 차례 호광 지역 향사에서 동고관을 담당했다<sup>7)</sup>(原任湖南邵陽醴陵興寧桂陽縣事 充庚午壬申癸酉丙子四科湖廣鄉試同考官)”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 서문은 朴趾源이 중국의 盛京, 北京, 熱河 등을 돌아 다니면서 지은 『熱河日記』에 들어 있는 “口外異聞” 속에 들

5) 이상 許浚. 『原本 東醫寶鑑』. 서울:남산당. 1975:69의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필자가 번역함.

6) 권혁명. 「고옥 정작의 삶과 시세계-‘부생’의 삶과 ‘장생부사’의 꿈-」. 근역한문학회. 2018:49:214.

7) 미키사카에 저. 오준호 역. 『조선의서지』. 대전:문진. 2022:961.

어 있는 “東醫寶鑑”이라는 제목의 글 속에 포함되어 있다. 朴趾源은 이 책 중국판 『東醫寶鑑』을 평소에 사고 싶었지만 이 때 은화 5냥이 없어서 사지 못하는 것을 한탄하면서 凌魚의 서문만 베껴서 나중 사람들의 고찰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하고 있다.

그 글 속에 포함되어 있는 凌魚의 서문은 아래와 같다.

“東醫寶鑑은 이에 명나라 때 조선의 陽平君 許浚이 지은 것이다. 조선 사람들의 시속을 살펴보면 평소부터 문자를 알아서 독서하기를 좋아하였는데, 허준의 집안은 또한 선비의 世族이다. 萬曆年間에 筭, 箒, 筠의 세 형제들이 모두 문장으로 이름을 날렸고, 그의 여동생 景樊도 글재주로 이름이 났는데 그의 오빠들보다 더욱 뛰어나 주변 모든 국가들 가운데 가장 걸출한 자였다. ‘東醫’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 나라가 동쪽에 있으므로 東이라고 말한 것이다. 옛적에 李東垣이 『東垣十書』를 지어 北醫로서 江蘇省과 浙江省에서 행세하였고, 朱丹溪는 『丹溪心法』을 지어 南醫로서 關中에 나타났다. 이제 陽平君 許浚이 치우쳐 외국에서 태어났지만, 이에 능히 책을 지어서 中國에까지 읽히게 하였다. 말은 죽히 전할 것을 기약하는 것이지 어떤 지역에 한계를 두는 것은 아니다. ‘寶鑑’이라고 말한 것은 왜일까? 햇빛이 새어 나와서 오래된 어두움이 풀리듯이 肌肉을 나누고 腠理를 갈라서, 사람으로 하여금 책을 열면 분명히 빛나는 것이 마치 거울과 같을 것이기 때문이다. 옛적에 羅益之가 『衛生寶鑑』을 지었고, 龔信이 『古今醫鑑』을 지었는데, 모두 鑑으로 이름을 붙였으나 과장하였다고 불평하지 않았다. 내가 가만히 일찍이 논하건데, 사람은 오직 五藏이 있고, 병은 七情에 그친다. 그 사이에 품부 받음이 치우치고 온전함이 있고, 병사가 점차 물듬에 얽고 깊음이 있고, 증상 변화에 통하고 막힘의 두 가지 증후가 있고, 맥의 움직임에 浮中沈의 三部가 있다. 자세히 살펴보면 마치 밭이랑처럼 가름이 있는 것이니 가히 넘을 수가 없는 것이며 들불처럼 타올라 가히 덮을 수 없다. 大黃이 가히 정체된 것을 이끌어내는 것은 알면서 가운데를 차갑게 만든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附子가 허한 것을 보충시키는 것은 알면서 독기를 남기는 것을 알지 못하니, 구제할 바가 없다. 이러한 까닭으로 至人は 병이 일어나기 전에 치료하고, 이미 병이 이루어진 다음에 다스리지 않는다. 병이 이미 만들어진 다음에 비로소 치료하는 것은 下策인데도 다시 용렬한 의사들에게 맡겨 판결시키니 어찌 낫겠는가. 심지어 사사로운 이익에 마음을 둔 자가 질병이 없는 사람을 치료하여 공적을 만들려 하고,

처음 이에 종사하는 자들은 환자들을 이용해서 공부하려고 한다. 『周易』의 약을 쓰지 말라는 占辭와 南人들은 恒心이 없다는 경계가 마치 일찍이 이러한 무리들을 위해 덮개를 떼버리는 것 같은 것이다. 옛날에 扁鵲이 “사람이 병으로 여기는 것은 질병이 많다는 것이고, 의사가 병으로 여기는 것은 병자들의 道가 적다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黃帝와 岐伯 이후 대대로 명의들이 나와서 지금에 이르러 저술이 번성해져 거의 汗牛充棟의 지경에 이르렀으니, 그 적음을 걱정할 일은 아니고, 의술에 효과가 있음과 효과가 없음이 있을 뿐이다. 어찌 옛사람들이 각기 본 바대로 학설을 삼을 것인가? 선택함이 정미롭지 못한 자는 말이 상세하지 못하고, 하나에 집착하는 자는 도의 적이다. 다른 사람의 병을 고치고자 하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고쳐주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고쳐주고자 하면서 그 사람의 뜻과 소통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지금 이 책을 보건데, 內景篇을 먼저로 하여 그 근원으로 소급해 올라갔고, 外形篇을 다음으로 하여 그 막힌 것을 소통시켰고, 雜病篇을 다음으로 하여 그 증후를 변별하였고, 湯液篇과 鍼灸篇을 마지막으로 하여 그 방법을 정했다. 이 가운데 인용한 것은 『天元玉冊』으로부터 『醫方集略』에 이르기까지 80여 종에 이른다. 대체로 우리 중국의 책들이고 조선의 책은 3종 뿐이었다. 옛사람이 이런 방법을 따르면서 능히 신통하게 밝혔으니, 하늘과 땅 사이에 빠진 것들을 보충하고 사대(四大: 地水火風)에 밝은 양기를 베풀었다. 편집을 끝내고 궁궐의 황제께 올려 國手로 추천되었지만 책이 간직된 秘閣을 돌이켜보니 세상에서 엿보기 어려웠다. 전에 齏使 山左 王公이 建節에 粵에 발령받아 가서 당시 의사들이 잘못된 경우가 많음을 근심하여 전문가를 수도에 보내어 베끼도록 하였다. 그러나 간행하지 못하고 그곳에서 떠나고 말았다. 順德의 明經 左君 翰文은 내가 총각 때부터 교유한 사람인데, 이를 안타까이 여겨 인쇄하여 널리 전할 것을 생각하였다. 3백여 緡의 돈을 썼지만 조금도 아끼는 안색이 없었다. 대체로 그 마음은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사물을 이롭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었고, 그 일은 양을 고르게 하고 음을 변화시키는 일이라. 천하의 보물을 마땅히 천하와 더불어 하고자 한 左君의 어실이 크도다. 관각이 끝난 뒤에 나에게 서문을 부탁하니 드디어 기뻐서 그 단서를 기록한다. 乾隆 31년 병술(1766년) 7월 상순에 원임 호남소양예릉흥녕계양현사 충청오임심계유병자사과 호광향시동고관(原任湖南邵陽體陵興寧桂陽縣事充庚午壬申癸酉丙子四科湖廣鄉試同考官) 番禺 凌魚가 쓴다.”<sup>8)</sup>

위의 서문은 몇 가지 점에서 의미가 있다.

첫째, 許浚의 가계에 대한 소개를 통해 허준이 명문가의 집안에서 의학을 한 자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조선 사람들의 시속을 살펴보면 평소부터 문자를 알아서 독서하기를 좋아하였는데, 허준의 집안은 또한 선비의 세족(世族)이다”라고 하여 儒醫로서의 許浚의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허준이 의관출신이므로 관직에 제한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한 조선 조정의 분위기와 대조적이다.

둘째, ‘東醫’라는 개념의 세계성이다. “이제 양평군 허준이 치우쳐 외국에서 태어났지만, 이에 능히 책을 지어서 중국에까지 읽히게 하였다. 말은 족히 전할 것을 기약하는 것이지 어떤 지역에 한계를 두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은 東醫라는 단어가 이미 한국의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화된 보편적 지식을 포괄하는 일반명사로 파악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東醫寶鑑』이 1610년 완성된 이후로 중국, 일본 등지에 전해지면서 세계성을 획득한 것이다.

셋째, 『東醫寶鑑』이 시대적 필요성에 부응하는 醫書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의서의 앞부분에 나오는 서문에 의례적으로 말하는 찬양으로서가 아니라, 실제로 汗牛充棟하는 의서들 속에서 알맹이가 있고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의서를 갈구해 왔던 중국인의 구미에 딱 들어맞는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寶鑑’이라는 단어를 설명하면서도 이 책이 “보배로운 거울”이라는 것에 깊은 찬동의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중국의 의서가 80여 종이고 조선의 의서는 3종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한 것도 역설적으로 중국의 의학이 위주로 되어있다는 것을 강조한다기보다는 外國에 해당하는 조선에서 정리된 보편성을 가진 의학지식에 대한 경이로움이 보다 더 강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넷째, “옛사람이 이론 방법을 따르면서 능히 신통하게 밝혔으니, 하늘과 땅 사이에 빠진 것들을 보충하고 사대(四大: 地水火風)에 밝은 양기를 베풀었다”는 것은 이 책이 중국 의서를 단순히 패러디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이론과 치료 방안의 길을 연 것이라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이것은 오래전부터 존재했던 의학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질병에 대해 대처할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의미도 포함한 것이다.

다섯째, 이 책이 출간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절절히 느껴진다는 점이다. “左君 翰文은 내가 총각 때부터 교류한 사람인데, 이를 안타까이 여겨 인쇄하여 널리 전할 것을 생각하였다. 3백여 緡의 돈을 썼지만 조

금도 아끼는 안색이 없었다. 대체로 그 마음은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사물을 이롭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었고, 그 일은 양을 고르게 하고 음을 변화시키는 일이라. 천하의 보물을 마땅히 천하와 더불어 하고자 한 左君의 어짐이 크도다.” 여기에서 눈에 띄는 것은 『東醫寶鑑』을 “천하의 보물”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는 점과 이 책의 인쇄에 사용한 돈을 아까워하지 않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점이다.

이렇듯 『東醫寶鑑』은 중국인 凌魚의 입장에서 볼 때, 학술적 능력이 뛰어난 朝鮮의 儒醫 許浚이 지은 세계화된 보편적 지식을 갖춘 천하의 보물인 것이다.

## 5. 日本醫官 源元通의 訂正東醫寶鑑跋

1723년 日本의 醫官 源元通은 朝鮮版 『東醫寶鑑』을 교정하여 『訂正東醫寶鑑』이라는 이름으로 간행하면서 다음과 같이 발문을 붙였다.

“삼가 영을 받들어 『정정동의보감(訂正東醫寶鑑)』이라고 제목을 붙이고 쓴다.

무릇 하늘이 백성을 보호하는 책무를 성인에게 맡기어서 성인이 백성보호의 가르침의 원칙을 세워 만세에 알리셨으니, 백성들을 교화하여 그 성품을 온전하게 하거나 의약을 만들어 그 삶을 구제하게 하였다고 들었다. 이것은 생명을 아끼고 백성을 사랑하는 도이다. 대군께서 친히 정치를 하셔서 법령(法令)이 크게 갖추어지게 되어 교화가 넓게 퍼졌으니 음양이 제자리를 얻어 온 세상 사람들이 덕을 흠모하게 되었다. 정치하시는 여가로 의사(醫事)와 약물(藥物)에 큰 생각을 내시는 것을 가장 간절히 하셨으니, 일찍이 조선의 허준이 편술한 『동의보감』이 그 책이다. 내경, 외형, 잡병, 탕액, 침구로 나누고 각각의 아래에 『영추』, 『소문』으로부터 역대 체현들에 이르기까지의 책들을 끌어다 붙이고 치료 사례를 찾아 모아놓고 방제를 수집하여 모두 25권으로 만들었으니, 진실로 백성을 보호해주는 신선의 경전이요, 의사들의 비법을 담고 있는 문서이다. 지금 대군께서 이 책을 인쇄하여 백성들에게 내리어 써지 않도록 하셨으니, 이것은 의가 가운데 장서(藏書)가 그다지 없는 자들이 얻어서 참고하기 편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일반 백성들 가운데 질병의 고통에 싸인 자들이 얻어서 삶을 온전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의학을 업으로 삼는 자가 이 책을 품속에 끼고 치료

8) ‘한국고전종합DB’의 원문 번역 내용을 바탕으로 약간의 교정을 거쳐 완성하였음을 밝힘. ([http://db.itkc.or.kr/dir/item?itemId=BT#/dir/node?dataId=ITKC\\_BT\\_1370A\\_0240\\_010\\_0270](http://db.itkc.or.kr/dir/item?itemId=BT#/dir/node?dataId=ITKC_BT_1370A_0240_010_0270))

하면 효과를 보는 것이 복이 복체에 응하여 소리가 나는 것 같으리라. 그리하면 백성들의 수명과 이 책이 모두 장수함을 얻게 되어서 생명을 아끼고 백성을 사랑하는 뜻을 저버리지 않는데 가깝게 되었다고 할 것이니, 백성들도 또한 크게 다행스러움을 얻게 되었다고 할만하다 하겠다. 오호라. 두터운 은혜가 온 나라에 널리 퍼지게 되었으니, 은혜를 어찌 우리러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미친한 신하에게 명령하셔서 훈점(訓點)을 가하고 널리 훑어보고 두루 편집함에 간간히 글자의 잘못됨과 문장의 착오가 보였으니 이러할 때는 인용된 원서를 찾아보아 모두 고쳐놓았다.

임인년(壬寅年: 1722년) 2월 초하루에 작업을 시작하여 동짓달에 일을 마치니 주상전하께서 곧바로 인쇄를 허가해 주셨다.

황송하옵게도 일 끝낸 것을 칭찬하시고 특별히 법안(法眼)의 벼슬을 내리셨으니 한편으로 뵈 듯이 기쁘고 한편으로는 송구스럽도다. 늘그막에 임금님의 은혜에 보답할 날이 부족함을 어찌하리오. 다시 제목을 붙이고 발문(跋文)을 뒤에 달 것을 명령하시니 진실로 글에 대한 지식도 부족하고 더우기 노쇠하였기에 비록 일을 감당할 수 없지만, 엄명을 완고히 사양할 수 없기에 황공스럽게 머리를 조아려 뒤에 쓴다.

1723년 봄 정월  
의관법안(醫官法眼) 원원통(源元通) 삼가 지음.<sup>9)</sup>

이 서문을 쓴 것은 일본 연호로 享保 8년인 1723년이며, 간행된 것은 다음 해인 1724년이며 간행처는 京都書林이다.

이 발문은 몇 가지 점에서 의미가 있다.

첫째, 일본국왕의 어진 정치를 실현하는 방안으로 醫事를 꼽으면서 그 방법론을 『東醫寶鑑』에서 찾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東醫寶鑑』이 1613년 초간본이 나온 이후로 어느 정도 동아시아 의학을 대표할 보편적 학리와 치료방안을 가지고 있는 醫書로 손꼽히고 있었다는 것이다. 위의 내용 가운데 “무릇 하늘이 백성을 보호하는 책무를 성인에게 맡기어서 성인이 백성보호의 가르침의 원칙을 세워 만세에 알리셨으니, 백성들을 교화하여 그 성품을 온전하게 하거나 의약을 만들어 그 삶을 구제하게 하였다고 들었다. 이것은 생명을 아끼고 백성을 사랑하는 도이다. 대군께서 친히 정치를 하셔서 법령(法令)이 크게 갖추어지게 되어 교화가 넓

게 퍼졌으니 음양이 제자리를 얻어 온 세상 사람들이 덕을 흠모하게 되었다. 정치하시는 여가로 의사(醫事)와 약물(藥物)에 큰 생각을 내시는 것을 가장 간절히 하셨으니, 일찍이 조선의 허준이 편술한 『동의보감』이 그 책이다.”라는 것이 그것으로서 『東醫寶鑑』이 일본의 의학계에 도입됨으로서 일본 국왕이 교화를 널리 베풀어 세상을 안정시키는데 하나의 방안이 되는 것이다.

둘째, 『東醫寶鑑』의 우수성에 대한 찬양이다. “내경, 외형, 잡병, 탕액, 침구로 나누고 각각의 아래에 『영추』, 『소문』으로부터 역대 제현들에 이르기까지의 책들을 끌어다 붙이고 치료 사례를 찾아 모아놓고 방제를 수집하여 모두 25권으로 만들었으니, 진실로 백성을 보호해주는 신선의 경전이요, 의사들의 비법을 담고 있는 문서이다.”라는 문장에서 볼 수 있듯이, “백성을 보호해주는 신선의 경전이요, 의사들의 비법을 담고 있는 문서”라는 표현은 이 책에 대한 최대의 찬사를 보내는 구절이다.

셋째, 日本 醫師들의 治療의 標準으로 삼고자 하고 있다. “의가 가운데 장서(藏書)가 그다지 없는 자들이 얻어서 참고하기 편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일반 백성들 가운데 질병의 고통에 싸인 자들이 얻어서 삶을 온전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의학을 업으로 삼는 자가 이 책을 품속에 끼고 치료하면 효과를 보는 것이 복이 복체에 응하여 소리가 나는 것 같으리라.”라는 구절이 그 내용으로서 기존의 일본의학에 대한 반성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東醫寶鑑』에서부터 찾고 있는 것이다.

넷째, 일본 국왕이 『東醫寶鑑』을 교정하고 跋文을 적은 源元通에게 공로를 인정하여 法眼이라는 관직을 내렸다는 점이다. “황송하옵게도 일 끝낸 것을 칭찬하시고 특별히 법안(法眼)의 벼슬을 내리셨으니 한편으로 뵈 듯이 기쁘고 한편으로는 송구스럽도다. 늘그막에 임금님의 은혜에 보답할 날이 부족함을 어찌하리오.” 이것은 『東醫寶鑑』의 간행이 일본에서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으로 인식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 6. 日本人 藤原朝臣의 訂正東醫寶鑑序

“『東醫寶鑑』25卷은 朝鮮의 國醫인 許濬이 모은 것이다. 內景, 外形, 湯液, 鍼灸, 雜病으로 分辨되어 있음에 古今의 衆說들이 마치 손바닥을 살피는 것 같으니, 가히 醫를 業으로 하는 자들이 본받아 머무를 하나의 도움되는 것이라 할

9) 이상의 내용은 日本 京都書林板本을 번각한 ‘光緒閔萃祥序刊本’에 있는 발문을 김남일이 번역함.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을 가지고 온 것이 적기에 세상 사람들이 드물게 보게 되었다. 이에 醫官인 法眼 源元通에게 命하여 訓訂을 덧붙이고 인쇄하여 小臣에게 서문을 맡겼다. 살펴보건대, 의학도 또한 학문의 도이다. 그 가르침이 術이 많으나, 그 학문이 밝지 못하고서 그 術이 정미로운 경우가 없으니, 그 학문을 밝게 하고자 한다면 독서를 많이 하지 않을 수 없다. 近世의 의사들은 항상 ‘병을 치료할 따름이니, 어찌 반드시 독서한 다음에 병을 치료할 것인가’라고 말하니, 어그러진 말이다. 병을 치료하는 법이 어찌 그 책의 밖에 있겠는가? 지금 의학의 기술이 있는 자들이 경험이 없는 것이 아닌데도 소견이 다르니, 소견이 다르면 의혹이 있고 어그러지게 된다. 그 폐단이 죽고 사는 큰일에 관계되는 것이므로 가히 삼가지 않을 것인가? 그 학문이 밝으면 의혹이 없을 것이고, 그 術이 정미롭다면 어그러지지 않을 것이다. 그 치료한 醫案이 분명한 것은 靑囊이 풍부한 자가 아니면 말하지 못할 것이다. 의학의 서적은 무릇 무수하니, 비록 넓게 본 사람이라 하더라도 감히 하루아침 하루 저녁에 궁구하여 예측할 수 있겠는가? 더구나 재산을 의서 사는데 쓰지 않는 무리가 어찌 능히 저장하여 축적시킬 수 있겠는가? 진실로 讀書한 然後에 병을 치료한다면 數十年間 빈손을 둘레에 펼치는 것이 어찌 이익됨이 있겠는가. 이 책이 사용된다면 이러한 누됨이 없을 것이다. 무릇 백성들의 질병이 사망을 면하여 위생의 도가 크게 후세에 보탬이 될 것이다. 오호라. 관리로서 현세와 후세를 염려하는 것이 가히 대등할 것인저. 이에 인하여 서문을 붙인다. 1723년 정월 중순에 從五位下守大學頭 藤原朝臣 信篤이 삼가 識함.”<sup>10)</sup>

에도막부가 통치하던 시기의 일본은 수준 높은 의학을 구사하는 조선 의학에 관심이 많았으며, 조선의학의 최고 의서인 동의보감에 대한 관심 또한 남달랐다. 그래서 에도막부는 또한 조선판 동의보감을 입수하여 출판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대마번주 宗義方이 동의보감을 막부에 진상한 일이 발생한다. 이 동의보감은 1718년 당시 에도막부의 쇼군이었던 德川吉宗에게 전달되었다. 德川吉宗은 일본의 의료를 위해서 동의보감을 복제하여 훈점과 교정을 가한 뒤 널리 보급하고자 하였다.<sup>11)</sup> 이것이 바로 訂正東醫寶鑑이었다.

위의 서문은 1723년 從五位下守大學頭의 관직에 있었던

日本人 藤原朝臣이 『訂正東醫寶鑑』을 간행하면서 쓴 것이다. 이 서문은 몇 가지 사항을 우리에게 문제로 던진다.

첫째, 『東醫寶鑑』의 우수성에 대한 찬양이다. “內景, 外形, 湯液, 鍼灸, 雜病로 分辨되어 있음에 古今의 衆說들이 마치 손바닥을 살피는 것 같으니, 가히 醫를 業으로 하는 자들이 본받아 머무를 하나의 도움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는 것이 그러한 것으로, 이를 통해 藤原朝臣이 이 책을 간행하는 의미로서 의사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우수한 책이라는 것을 가장 우선으로 꼽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당시의 폐단이라 할 수 있는 공부하지 않고 환자를 진료하는 학구적이지 못한 의사들에게 교과서라 할 수 있는 책을 공급하고자 『東醫寶鑑』을 간행한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近世의 의사들은 항상 ‘병을 치료할 따름이니, 어찌 반드시 독서한 다음에 병을 치료할 것인가’라고 말하니, 어그러진 말이다.”라는 것은 당시 의사들의 독서를 경시하는 풍조에 대한 일침으로서, 학문의 발전과 치료술의 제고를 위해서 『東醫寶鑑』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이에 작용된 것이다.

셋째, 치료 방안의 표준을 『東醫寶鑑』으로 하고자 한 의도가 엿보인다. “지금 의학의 기술이 있는 자들이 경험이 없는 것이 아닌데도 소견이 다르니, 소견이 다르면 의혹이 있고 어그러지게 된다. 그 폐단이 죽고 사는 큰일에 관계되는 것이므로 가히 삼가지 않을 것인가?”라는 것은 이러한 염려의 일환이며, 이러한 염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표준이 될 치료 체계를 갖고 있는 의서가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다.

넷째, 『東醫寶鑑』이 현세뿐 아니라 미래에까지 의학의 기준이 될 의서로 판단하고 있다. 이것은 현재에도 한의계에서 이 책을 중요한 의서로 여기고 연구,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할 때 매우 뛰어난 통찰력이라 할 것이다.

## 7. 중국인 閔萃祥의 東醫寶鑑序

청나라의 閔萃祥은 華亭 출신으로 청나라 말기에 뛰어난 고문가로 이름이 높았다. 일본판 『東醫寶鑑』을 교역선을 통해 구한 뒤<sup>12)</sup> 이를 중국판으로 간행하면서 1890년에 다음과 같은 序文을 쓰고 있다.

10) 이상의 내용은 日本 京都書林板本을 번각한 ‘光緒閔萃祥序刊本’에 있는 서문을 김남일이 번역함.

11) 박현규, 「일본에서의 조선 許浚 『東醫寶鑑』 유통과 간행」, 일본연구, 2018;29:172-173.

12) 박현규, 「조선 許浚《東醫寶鑑》의 중국판본 고찰」, 중국학총론, 2014;43:246.



“東醫寶鑑의 서문

東醫寶鑑 23권은 朝鮮의 國醫인 許浚이 그 나라 임금의 하고를 받들어 편찬한 것이다. 日本의 醫官인 源元通이 이것을 訓訂하였는데, 卷首의 序에 享保 癸卯라는 것은 이에 皇朝 雍正 紀元의 해(기원후 1723년)이다. 그러나 허준은 년월을 밝히지 않고 있어서 언제의 사람인지 분명하지는 않다. 인용한 歷代醫方들은 거의 명나라 시대에 만들어진 것들이다. 그 책은 內景, 外形, 雜病, 湯液, 鍼砭의 다섯 가지로 大綱을 삼았는데, 각각 같은 부류에 따라 나열하여 目을 삼았다. 또한, 子目으로 쪼개어 조목별로 나누어 사항에 따라 매어 놓았다. 매 건마다 한가지 사항을 들음에 반드시 그 근원되는 것들을 고증하고 그 桴머리를 궁구하여 맥 법으로 증거한 연후에 처방을 나열하였다. 반드시 상세히 하고 반드시 갖추어져 있도록 하여 질서정연하고, 인용된 서적들이 하나의 틀로 바로 되어있고, 각 주석의 좃아 내어 보여준 것이 억측으로 판단된 것이 아니니, 진실로 의학 가운데 열매를 거두어들이는 책이라 할 것이다. 다만 首篇의 內景은 이미 黃庭經을 이어서 이름을 삼은 것이고, 다시 條例에서도 그 뜻을 펴서 말하고 있다. ‘道得其精, 醫得其粗’라고 말한 것에 미처서는 老氏의 설을 마루로 하여 숭상하고 스스로 허무에 발돋움하고 있으니, 이것은 열매를 거두어들이는 자의 할 바와 차이가 있는 것이다. 무릇 의학의 가르침은 上古聖인이 草木의 맛을 보아 氣味를 분별하여 모든 질병을 치료하고 아래로 다다름에는 사람의 해가 되는 바를 제거하여 그 천수를 다하고 죽게 하자는 것이지, 의학을 두어서 사람들이 가히 죽지 않게 하자는 것을 말한 것은 아니다. 하늘이 萬物을 生함에는, 하나의 草木의 細滋長衰落도 각각 때가 있고, 하나의 昆蟲도 微胎息委蛻이 있다. 또한 사람들이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지나 장년이 되고 노쇠하게 되어 죽게 되는 것은 모두 항상된 법도이다. 사람을 돌아보면 이미 만물 가운데 가장 신령한 것이지만, 그 욕심은 또한 만물 가운데 가장 많다. 욕심이 가장 많기에 喜怒哀樂이 가운데서 싸우고 富貴利達이 밖에서 혼든다. 이에 寒暑陰陽이 틈에 다다라서 들어가 札瘥疠昏의 고통이 일어나게 된다. 만약 세상에 良醫가 있다면 사람들이 능히 札瘥疠昏을 벗어날 수 있으리니, 周나라 관직에서 이른바 10명 중 10명을 다 고친다면 상급이라고 한 것과 같은 것을 또한 반드시 하지 못한다면 또 어찌 長生不死의 방도가 있겠는가. 만약 그와 같은 것이 있다면 徐福이 어찌 바다에서

도망갔겠으며 文成도 형벌을 받는 것이 합당하지 않았을 것이며, 不死의 약이 마땅히 세상에 전해졌을 것이다. 이른바 옛날의 良醫들은 반드시 맥을 잡고 색을 살피고 소리를 들어보고 몸의 형체를 살핀다는 것도 미치지 못할 것이 두려움에도 한가로이 그릇되고 멀고 황망하고 동떨어진 설을 말하는가. 그 그릇되고 멀고 황망하고 동떨어진 설은 이에 方士들의 옛 습속이지 의학 중주의 바른 길이 아니다. 또한 옛사람들이 처방을 만드는 것은 병의 근원을 探索하고 약성을 참고하여 軍신의 자리를 짚하고 경중의 마땅함을 참작한 것이지 우연히 만든 것은 아닐 따름이다. 그런데, 허준은 또한 古方의 분량이 매우 많아서 다 갖추어 사용하기 어려워져 『古今醫鑑』과 『萬病回春』의 기준으로 바꾸어 좃아서 매 처방마다 헤아려서 일곱여덟 돈 혹은 한냥이 되게 하여 분량을 중도에 맞게 하였다고 한다. 이것은 더욱 공부하지 않은 잘못이다. 무릇 옛적의 升斗權衡(용량)은 본래 지금의 것과 같지 않다. 陳無擇이 漢錢文에서 半兩이라고 한 것은 한나라 처방에서 마땅히 반 량의 동전 두 개로 一兩을 삼아야 한다는 것이고, 徐大椿이 친히 漢詩를 보고 六升의 銅量容은 지금의 一升二合이라고 하였는데, 모두 근거가 있으니, 千金方에서 옛 三兩이 지금의 一兩이고 옛 三升이 지금의 一升이라고 천착하여 공으로 말한 것과 같지 않다. 이에 古方의 分兩은 진실로 일찍이 많은 것이 아니다. 許浚이 이미 깊이 상고하지 않고서 문뜩 고쳐서 사용하니 마음대로 하는 것이 이보다 심한 것이 없다. 오직 많은 고서들을 수집하여 조리가 분명하고 인용한 전거가 흡족하여 황제와 기백을 말하는 자들에게 족히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아깝게도 이단의 학설에 빠져있고 또한 스승의 마음을 마음대로 쓰는데 과감하였다. 스스로 그 책을 이지러뜨렸으므로 특별히 이를 제기하여 열람하는 자들의 의혹을 깨고자 한다. 귀하게 여기는 것이 그 흠을 줄이고 그 순전한 것을 사용함에 있으면 가할 것이다. 乾隆間에 順德左翰文의 刊本에는 日本人的 序가 없는데, 番禺 凌魚의 序에서 秘閣에서 鈔傳된 것이 세상에 돌아다니던 지 이미 오래되었지만 여러 차례 뒤집어서 파내어 인쇄하여 퍼져서 분간되지 못하게 어그러져 읽어내지 못하게 되었다. 이 판본은 朱曜之가 番舶에서 구입한 조선의 원각본과 교간본을 모두 살폈다. 原序가 全書의 요점을 發明하지 못하였기에 나에게 이와 같이 다시 쓰게 하였다.

光緒十有六年(1890년) 봄 正月 華亭 閔萃祥이 씀<sup>13)</sup>

13) 이상의 내용은 日本 京都書林板本을 번각한 ‘光緒閔萃祥序刊本’에 있는 서문을 김남일이 번역함.

위의 서문을 통해 閔萃祥의 『東醫寶鑑』에 대한 인식과 당시 중국의 의학적 분위기를 가늠해 볼 수 있다.

첫째, “의학 가운데 열매를 거두어들이는 책”이라고 『東醫寶鑑』의 학술적 성취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당시 『東醫寶鑑』은 중국인들이 애독하는 서적의 하나였다. 1763년 중국 판 『東醫寶鑑』이 나온 이후(이를 乾隆壁魚堂刊本이라고 함)로 1890년까지 20여 회 출간될 만큼 이 책은 중국에서 중요한 의서로서 기능하고 있었다.

둘째, 『東醫寶鑑』의 內景篇의 도가적 색채에 대해 비판적 주장을 하고 있다. 閔萃祥은 의학의 목표는 질병에 대한 치료이며, 이러한 치료목적을 완수하기에 『東醫寶鑑』은 훌륭한 책임에 틀림없다고 보고 있지만, 앞부분에 나오는 도가적 요소는 이 책의 가치를 반감시킨다고 여긴 것이다. 이러한 비판적 견해는 許浚과 閔萃祥의 의학적 목표의 차이를 노정시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셋째, 『東醫寶鑑』의 용량에 대한 補正을 비판하고 있다. 陳無擇, 徐大椿 등의 용량에 대한 견해도 끝어다 許浚의 용량에 대한 무지를 비판하고 있지만, 이것은 지나친 억측으로 볼 수 있다. 허준은 기존 의서의 약량이 당시 조선인의 체질과 불일치함을 발견하여 『古今醫鑑』과 『萬病回春』을 기준으로 약량을 조정한 것으로, 閔萃祥의 주장처럼 도량형

의 변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용량을 곡해시킨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閔萃祥의 주장은 『東醫寶鑑』에 대한 정당한 비판으로 보기 어렵다.

넷째, “이단의 학설에 빠져있고 또한 스승의 마음을 마음대로 쓰는데 과감하였다”는 등의 비판은 『東醫寶鑑』의 내용 가운데 도가적 요소와 책에 대한 인용을 빗대어 말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지만, 이러한 문제점을 서문에 써 놓고 있는 것은 閔萃祥이 이 책에 대해 어떤 비판적 입장에서 읽어야 하는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가 보기에 허준의 『東醫寶鑑』은 “이단의 학설에 빠져있다”고 할만큼 독창적이며, “스승의 마음을 마음대로 쓰는데 과감하였다”고 할 만큼 요점을 잘 정리하고 있는 것이었다.

### Ⅲ. 고찰

위에서 살펴본 위와 같이 韓中日 三國의 『東醫寶鑑』 관련 序文, 集例, 跋文을 정리하여 동의보감에 대한 평가를 간단한 표로 요약해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1. 동의보감에 대한 평가들

	인물	동의보감 언급 시기 (서기)	평가
朝鮮	李廷龜	1611	고금을 두루 포괄하고 있으며 강령과 요점을 잘 제시하고 있다. 질서정연하고 많은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책이 필요 없을 정도이다.
	許浚	1611(추정)	內景, 外形, 雜病, 湯液, 鍼灸의 구조에 변통의 이치를 다 하였다. 그래서 환자들이 명확하게 치료하여 실수하지 않아 보건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다.
中國	凌魚	1766	책의 편차가 조리 있고 인용한 서적이 다양하며 기존의 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길을 열었기 때문에 보배로 여길 만하다.
	閔萃祥	1890	책의 구조가 질서정연하며 매 사항마다 억측이 아닌 명확한 근거가 제시되어 있다. 다만 노자의 학설을 추종하며, 자체적으로 조절한 약의 분량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흠이다.
日本	源元通	1723	책의 체제가 조리있으며 다양한 내용과 치료법을 담고 있기 때문에 진실로 백성을 보호해주는 신선의 경전이오, 의사들의 비법을 담고 있는 문서라고 할 수 있다.
	藤原朝臣	1723	책의 구조가 명확하며 다양한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것의 독서를 통해서 소견이 다른 경우 표준이 되어줄 수 있다.

위의 표를 보면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사항이 존재한다. 바로 『東醫寶鑑』의 구조에 대한 것이다. 內景, 外形, 雜病, 湯液, 鍼灸로 진행되는 구조는 인체의 근원적인 구성요소인 精, 氣, 神으로부터 시작하여 인체의 실제 형태 구조 요소인 두(頭), 면(面), 수(手), 족(足), 근(筋), 맥(脈), 골(骨),

육(肉) 등을 나열하고 이러한 바탕 아래 발생하는 갖가지 질병들, 그리고 실제 이러한 질병을 치료하는 수단인 湯液, 鍼灸를 뒤에 덧붙임으로써 매우 체계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본 논문에서 다룬 6명의 인물들이 모두 공통적으로 언급하는 내용이다. 內景, 外形, 雜病, 湯液, 鍼灸 이 다섯

편의 큰 줄기에서 세세한 의학 내용으로 전개되는 모습은 마치 나무줄기에서 나뭇가지가 뻗어 나가는 것처럼 매우 자연스럽다. 그렇기 때문에 『東醫寶鑑』이 많은 내용을 포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논리정연해 보이고 번거롭지 않다고 느끼는 것이다. 이러한 조리 있는 구조 덕분에 조선 후기에 등장하는 많은 의서들이 『東醫寶鑑』의 체제를 그대로 차용하거나 혹은 이를 변형해서 활용한다.

동의보감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은 閔萃祥 한 사람만 제기하였다. 그가 제기한 문제점으로는 첫째, 당시 이단의 학설로 분류되는 도가의 학설을 추종하는듯하게 보인다는 것이고, 둘째, 도량형의 역사에 무지하여 약의 분량을 임의적으로 고쳤다는 것이다. 첫째의 부정적인 평가는 엄연히 유교가 국교였던 중국과 조선에서는 나올만한 비판이다. 하지만 생명의 유지와 보존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도가의 사상은 한의학의 발전에서 기여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완전히 도외시한다는 것은 오히려 편향되고 불공평한 관점을 지니게 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의 비판에 대해 살펴보면 허준은 기존 의서의 약량이 당시 조선인의 체질과 불일치함을 발견하여 약량을 조정했기 때문에 閔萃祥이 오해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이러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閔萃祥도 다른 5명의 인물들과 마찬가지로 동의보감의 구조가 질서정연하며, 그 안에 담긴 내용이 유용하다는 사실에는 동의한다. 이것을 고려한다면 확인한 표본의 수가 적기는 하지만 韓中日 삼국에서 『東醫寶鑑』을 바라보는 시각이 대체적으로 긍정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 IV. 결론

위와 같이 韓中日 三國의 『東醫寶鑑』 관련 序文, 集例, 跋文을 정리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李廷龜의 東醫寶鑑序는 이 책이 완성된 이후 최초로 쓴 서문으로서, 출판의 과정과 참여 인물, 의의 등을 서술한 것으로서 뛰어난 문장을 자랑하고 있다. 許浚의 集例는 『東醫寶鑑』의 구성과 용량, 역사적 의의 등을 다루고 있다. 중국인 凌魚의 東醫寶鑑序는 중국인의 입장에서 바라본 이 책의 세계사적 의의와 넓은 활용성 등에 대해 다루고 있다. 日本醫官 源元通의 訂正東醫寶鑑跋은 이 책의 우수성과 치

료의 표준화방안의 제시 등의 의의를 서술하고 있다. 日本人 藤原朝臣의 訂正東醫寶鑑序는 치료의 표준을 제시한 의학적으로서의 의의와 미래의 의학의 길을 열어줄 책임을 밝히고 있다. 중국인 閔萃祥의 東醫寶鑑序에서는 이 책이 가지고 있는 도가적 색채와 용량에 대한 문제를 비판하고 있지만 그 독창성에 대해서는 깊이 동감하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본 연구는 조선, 중국, 일본에서 각각 李廷龜와 許浚, 凌魚와 閔萃祥, 源元通과 藤原朝臣의 글을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주목할 만한 내용을 다루고는 있지만 동의보감에 대한 당대 지식인들의 인식을 일반화하기에는 그 표본의 크기가 작다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본 연구를 시작으로 하여 동의보감을 활용한 이차 저작들과 같이 더 많은 사료를 확보하여 더욱더 진보된 연구가 이어지기를 바라는 바이다.

#### 참고문헌

1. 강연석, 김훈, 김남일, 김용진, 김종현, 김태우 외. 『의사학』. 고양:대성의학사. 2023.
2. 옥영정. 「『東醫寶鑑』 初刊本과 한글본 『동의보감』의 서지적 연구」. 장서각. 2010;24:7-37.
3. 권진옥. 「조선 중기 한문 사대가의 비평사적 존재 양상과 위상 재고」. 한국어문학국제학술포럼. 2022;58:273-307.
4. 許浚. 『原本 東醫寶鑑』. 서울:남산당. 1975.
5. 권혁명. 「고옥 정작의 삶과 시세계-‘부생’의 삶과 ‘장생 부사’의 꿈-」. 근역한문학회. 2018;49:213-239.
6. 박현규. 「일본에서의 조선 許浚 『東醫寶鑑』 유통과 간행. 일본연구」. 2018;29:149-182.
7. 박현규. 「조선 許浚《東醫寶鑑》의 중국판본 고찰」. 중국학총론. 2014;43:235-260.
8. 미키사카에 저. 오준호 역. 『조선의서지』. 대전:문진. 2022:961.